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이봉원·박미선 부부 '개그스타' MC 발탁

개그맨 이봉원·박미선 부부가 24일 밤 12시35분 첫선을 보이는 KBS 2TV '개그스타'를 통해 웃음을 선사하고 후배 양성에도 나선다.

두 사람이 나란히 MC로 발탁된 '개그스타'는 개그계 선후배와 개그맨 지방생들이 함께 만드는 코미디 프로그램이다. 기성 개그맨들의 콩트를 비롯해, 신인 개그맨들의 데뷔 무대를 마련하고 개그맨 지방생들 중에서 인재를 발굴해낸다.

이봉원과 박미선은 부부 콩트를 펼치고 이성미와 강성범은 '보도본부 25시', 이봉원·박미선·이성미·강성범·유세윤은 '5인용 식탁' 등의 콩트를 꾸민다.



사랑에 빠진 야수 “제 앞날요? 저도 궁금하네요”

'선덕여왕' 비담 역 김남길

“너 누구야? 누구데 미실이 직접 챙기는 거야?” 지난 20일 MBC TV '선덕여왕'의 한 장면. 염종(엄효섭 분)이 비담을 의자에 묶어놓은 채 예를 태우며 던진 간절한 질문이다.

머리 회전 빠르고 간교한 염종도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비담의 정체. 미실(고현정)의 숨겨진 아들이자 마음 한구석에 악마적 근성을 잠시 숨기고 있는 비담의 실체는 두 달여 남은 MBC TV '선덕여왕'의 비장의 무기다.

“일래는 분노와 미실 모두 제가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 설정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어 저도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비담을 연기하는 김남길(28)은 이렇게 말하며 실제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본

“선악 공존하는 비담 매력적 나한테 딱 맞는 옷 같은 느낌”

이 한 주 앞서 나오는 까닭에 현재는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는 듯한 비담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담은 애초 야생의 습성을 가진 야누스적인 모습으로 '선덕여왕'에 등장했다.

“중간에 투입된 데다 혼자서 너무 만화 같은 캐릭터라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시청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상상 이상으로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죠. 여태껏 사극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캐릭터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는 “나 역시 비담이 그렇게 특이한 인물일 줄은 몰랐는데, 그게 나한테는 딱 맞는 옷 같았다”며 “주변에서도 캐릭터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너 작가랑 친하냐?’고 많이 물었다”며 웃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덕만을 통해 난생 처음 측은지심을 느끼게 됐고, 거기서 한 단계 발전해 연정을 품으면서 지금은 잠시 야생성과 악마성을 잊은 상태다.



“풍월주를 선발하는 비재를 기점으로 비담은 확실히 변화했어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물이었지만 비재 때부터 다른 인물이 된 것 같아요. 악마성은 염종과 춘추 등 주위에 있는 인물에게 나눠준 채, 덕만에 몰입하게 됐는데 비담에게는 어떤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천방지축 광인이었던 비담이 덕만을 만나 멸속한 화랑이 된 현재 그에게서는 순정만이 느껴진다. 항간에서는 '선덕여왕'의 시청률이 최근 40% 대 밑으로 떨어진 이유가 비담이 발톱을 숨겼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비담은 자신이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덕만과 결혼해 왕이 되려는 야망을 품게됩니다. 하지만 야망에 앞서 덕만을 연모하는 마음이 먼저인 것은 맞아요. 그 점 만큼은 끝까지 유지되기를 바라요.”

“만화같은 캐릭터 걱정 했는데 상상 이상의 반응에 감사할 뿐”

역선 연기 도중 오른쪽 발목을 삐끗했던 그는 지금도 심하게 움직이면 통증을 느낀다.

“다쳐서 반갑스를 했는데 스케줄 때문에 그 상태로 촬영을 해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아팠어요. 그런데 ‘제발 촬영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 자신에게 빌었더니 어느 순간 고통을 잊고 연기하고 있더라고요.”

비담은 내달 초 48회째 미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미실 사후에는 비담이 덕만의 주적이 될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는 “비담은 선덕여왕에 반기를 들어 난을 일으킨 것으로 역사에 한 줄 기록된 인물이다. 하지만 역사란 승자에 의해 기술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리 드라마에서는 비담의 난에 사랑과 대의라는 명분을 쥐, 시청자들이 비담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희뉴스

음악차트 1위 석권 힙합듀오 '리쌍'

“유행 따르기 보다는 우리 얘기 담았을뿐”

최근 발매된 리쌍(개리 31, 길 32)의 6집 '헥사게틀(HXAGONAL)'이 음악차트 1위를 석권했다.

최근 인터뷰에 응한 두 멤버는 “음악차트 100위 안에 11곡이 진입했다는데, 친구인 사이의 전화 받고 알았다. 인터넷을 서핑하며 신경 써주는 싸이가 우리 인터넷 매니저”라고 말했다.

6집은 그간 리쌍이 히트곡 '발레리노', '내가 웃는게 아니야' 등에서 보여줬던 중독성 강한 멜로디에 현실을 담은 감각적인 랩 가사, 장기하와얼굴들·루시드폴 등 예상밖의 피처링 진용까지 가세해 음악적으로 호평받으며 2주간 상승세를 지속했다. 길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코믹한 이미지로 활약, '음악이 진지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기우였다.

반응이 좋은 두곡 중 타이틀곡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 가지 못하는 남자'는 사랑이 식었음에도 끝내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남녀관계, 적나라한 표현의 '19금' 가사인 '내 몸은 너를 지웠다'는 이별 후 육체관계의 잔향이 괴롭히는 또 다른 남녀 관계의 현실을 담았다.



“포장해서 예쁘게 돌려 쓰려 하면 가사가 잘 안 나와요. 음반 작업 전 노벨문학상을 받은 파블로 네루다 시인의 시집을 두권 봤는데 감동받았죠. 간절하면서 거칠고 솔직한 표현이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고 가슴에 와 닿았어요. 노래 가사도 아름답게 쓰려 하기 보다 제 얘기를 옮겨봤죠.”(개리)

“개리가 여자의 마음을 가사에 잘 담아내, 집에서 차마 입고 다닌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하하. 우리는 유행타는 얘기보다 평범한 우리 얘기가 곧 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생각, 경험을 담을 뿐이죠.”

두 멤버는 자신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로 “없이 시작해 앓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개리는 “평소 우리가 좋아했던 뮤지션을 찾아보고 발 넓은 길이 설의 탐방이었다”며 “장기하 씨에게 전화 걸어 술 한잔을 제안했고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라는 후렴구가 바로 나왔다. 장기하 씨와 작업은 호흡이 잘 맞았다”고 말했다. 이 음반에는 길의 여자 친구인 쥬얼리의 박정아도 피처링과 코러스로 이름을 올렸다.

길은 “정아와 녹음실에서 데이트했는데, 가이드 녹음을 부탁했다”며 “노래에 맞는 보컬을 찾기 위해 오디션을 80명 봤는데 개리가 정아의 느낌이 가장 좋더라. 쥬얼리로 활동하며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할 기회가 적었기에 정아의 음색이 새롭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www.nanomtech.co.kr
대표번호 1577-8515

황금의 5분을 아십니까?

하루 24시간 중 비수면 시간 중 5%만 건강
누구도 50대만 2% 넘지 않음
50대만 50대 이상은 HeartPlus ACD-1000E
50대 50대만 50대만 50대만

광주비학기술원과 공동연구개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심박계
편의성과 함께 사용 시 확실한 효과를